

선발 공백·타격 부진...KIA 원정 6연전 부담



“잘 좀 해보자” 23일 오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앞서 KIA 김기태 감독이 타격 지도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화전 선발 ‘오리무중’...삼성-NC전 첩첩산중
오락가락 날씨·두산 맹추격에 선수들 피로 누적



‘호랑이 군단’이 고민 많은 원정길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가 24일부터 대전-마산-대구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을 치른다.

24·25일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하는 KIA는 26·27일에는 NC 다이노스와 원정경기를 한다. 그리고 이동 거리를 고려해 광주로 돌아오는 대신 바로 다음 격전지인 대구로 이동, 29·30일 삼성 라이온즈와 대결한다.

1주일간의 여정에 나서는 선수단은 다른 길음과 성격으로 돌아와야 한다. 벤치는 마운드 구성을 고민해야 하고, 선수들은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후반기 정해진 KIA의 걸음에는 선발 공백과 타격 부진이 있다.

선발진 구성은 1위 행보는 물론 ‘가을 잔치’의 승패까지 좌우할 중대한 문제다.

시즌 출발을 할 때도 KIA는 선발진 완성성을 위해 많은 테스트를 했다. 전반기에는 운이 좋았다. 이런저런 실패 뒤 임기영이라는 정용운이라는 두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꾸준한 승리가 쌓였다.

하지만 후반기 두 선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시 또 마운드가 요동치고 있다. 배원찬이라는 ‘깜짝 카드’가 실패로 끝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마운드가 됐다.

KIA는 이번 원정길에서도 임시 선발로

두 경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아직 선발진은 오리무중이다.

지난 18일 두산전 선발로 출격했던 임기준은 예상과 달리 2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불펜으로 투입됐다. 연패 탈출을 위한 승부였지만 경기는 3-7패로 끝났고, 여전히 임기준은 ‘선발 후보’다.

‘선발 후보’만 준비한 상황 속에 투·타의 안정적인 전력을 앞세운 두산 베어스의 추격은 거세지고 있다.

선발진뿐만 아니라 불펜의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KIA의 아킬레스건이다. 전반기 불펜진의 집단 난조 속에 어렵게 경기를 풀어왔던 KIA는 후반기 불펜진의 안정세 속에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가 정해진 모양새는 아니다. 김세현·임창용·김윤동이 필승조 겸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필승조·추격조·패전조를 딱히 구분할 수 없는 불펜진이다. 계산이 잘 맞아떨어질 때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의 위험 부담과 후유증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큰 무대까지 계산한 선발·중간·마무리 역할 분담과 그 자리에 맞는 선수들의 능력이 필요한 KIA 마운드다.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해야 하는 여정 속에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도 필수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알 수 없는 날씨 속 일교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동의 연속’이라 선수들의 피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극심한 타격 부진 속에 추종해던 후반기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와 집중력이 절실한 원정 6연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김 감독 “베이징 金 따고 청와대 갔는데 난 못갔어”

▲피곤해요
안치홍에게는 낯선 2연전이다. 한 시즌에 144경기를 치르고 있는 프로 야구는 10구단 체제 속에서 2연전이라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KIA는 24일부터 대전-마산-대구로 이어지는 원정길에 나선다. 이동과 이동의 연속, 이동 거리가 긴 지방팀들에는 특히 불리한 일정이다.

‘예비역’ 안치홍에게는 처음 소화하는 2연전 일정이기도 하다. kt가 막내 팀으로 뛰어들면서 10구단 체제가 된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 군 복무를 하느라 2연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안치홍은 “2연전은 처음 해본다. 짐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피곤하다”며 낯선 일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승엽 선배님 투런
TV로 베이징 올림픽을 지켜봤던 두 ‘야구 소년’에게는 이승엽(삼성)의 결승 투런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다. 23일 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한 전국 5개 구장에서는 ‘야구의 날’을 기념한 팬 사인회가 열렸다.

야구의 날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8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 이날 KIA 대표로는 투수 심동섭과 김윤동이 팬 사인회에 참가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심동섭은 광주 일고, 김윤동은 경성중에 재학 중이었던 ‘야구 소년’이었다.

다른 곳에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던 두 사람이지만 기억나는 장면은 같다. 두 사람은 모두 ‘이승엽 선배의 투런’을 외치며 베이징 올림픽 때를 떠올렸다.

심동섭은 “그때 야구 게임을 했었는데, 대표팀이 이길 때마다 아이템을 줬었다. (윤)석민이 형이 중간에서 열심히 막기도 했었는데 당시 기억이 난다”고 웃었다.

▲벌써 그렇게 됐다
기억은 생생하지만 벌써 옛날이 되어버린 영광의 순간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9전 전승을 기념하는 ‘야구의 날’이었던 23일 KIA 김기태 감독은 “벌써 그렇게 됐다. 시간 빠르다”며 잠시 옛 추억을 떠올렸다.

일본 요미우리에서 코치 생활을 했던 김 감독은 당시 김경문 감독의 요청으로 대표팀 타격 코치로 참여, 9전 전승 우승 역사에 함께 했다.

김 감독은 “김경문 감독님 정말 대단하셨다. 당시 우승하고 대표팀 청와대도 갔었는데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느라 못가봤다”고 웃었다.

당시 KIA 소속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선수는 윤석민·한기주(이상 투수)와 현재 한화에서 뛰고 있는 외야수 이용규 등 세 명. 조계현 수석코치도 당시 대표팀의 수석코치로 활약했다.

▲어깨가 더 무거워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23일 오전 아들을 얻었다. 딸에 이어 아들을 얻으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양현종은 “나를 많이 닮았다. 아이가 하나 더 생기니 책임감도 더 생기고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성탄절 임신 사실을 알 게 돼 태명을 ‘산타’로 했던 양현종은 아직 아이의 이름은 짓지 않았다. 양현종은 “팬들께서는 막내 선수로 지내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인데, 벌써 이렇게 고참 선수가 되고 두 아이 아빠가 됐다(웃음)”며 “가족과 팀을 위해서 의젓하고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의 날 팬사인회 23일 오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앞서 KIA 김윤동, 심동섭, 롯데 김원중, 나경민이 팬 사인회를 갖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17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에서 황우진(왼쪽 세번째), 전웅태(오른쪽 세번째), 황우진(왼쪽 세번째)이 시상대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진-전웅태 근대5종 세계선수권 계주 2연패

황우진(광주시청), 전웅태(한국체대)가 2017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계주 종목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두 선수는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계주 경기에서 1422점을 획득해 독일과 벨라루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첫 번째 종목인 수영에서 3위를 기록한 계주대표팀은 펜싱에서 20승 13패로 3위를 유지했다.

이어 승마에서 3종목 합계 1위로 올라선 뒤, 사격과 육상으로 이뤄진 레이저 런에서 독일을 3초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코리안리거 부활 기지개

김현수 멀티히트...2경기 3안타

김현수(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더블헤더 2경기에서 3안타를 쓸어담으며 부활의 기지개를 폈다.

김현수는 23일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 더블헤더 1차전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삼진을 남겼다.

김현수가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쳐낸 것은 시즌 3번째이자 필라델피아 이적 후 처음이다. 2회 말 2루수 앞 땅볼, 4회 말 스탠딩 삼진을 당한 김현수는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터트렸다.

9회 말에는 마이애미의 3번째 투수 터스틴 맥그와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김현수는 이후 안드레스 블랑코의 투런 홈런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양 팀 합계 홈런 9개가 나온 ‘타격쇼’ 끝에 마이애미가 12-8로 승리했다.

김현수는 또다시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2차전에서도 2타수 1안타 1득점으로 안타 1개를 추가한 뒤 5회 초 수비 때 교체됐다. /연합뉴스



박병호 트리플A 3경기 연속 홈런

메이저리그 승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박병호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다.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A 구단인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뛰는 박병호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주 로체스터 프런티어 필드에서 열린 스킨턴/윌크스베리 레일라이더스(뉴욕 양키스 산하)전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2안타(1홈런) 4타점을 올렸다.

박병호는 0-2로 뒤진 1회 말 2사 1·2루에서 상대 선발 브래디 레일을 상대로 1타점 좌전 적시타를 뽑아냈다.

캐츠의 출발을 한 박병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때려냈다. 1-4로 뒤진 3회 말 1사 2·3루에서 레일의 6구째를 공략해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아치를 그렸다.

박병호는 시즌 13호 홈런이자 지난 21일 루이빌 배츠(신시내티 레즈 산하)전 이후 3경기 연속 대포를 쏘아 올렸다. 이날 경기는 4회 초 우전 서스펜디드가 선연돼 양 팀은 24일 오전 6시 5분에 경기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